

5월의 교수님(2)

분자생물학과 김 애 리 교수님

교수님과의 15분 인터뷰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김 애 리 교수님

Q1. 교수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추천해준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몰랐던 일인데) 그리고 제가 올해 26번째 학기 거든요. 만13년이 되는데요.
제 강의를 좋게 봐주는 학생들이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Q2. (학생 질문) 교수님 수업이 좋은데 더 개설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총 4개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분자 생물학과 1학년 수업과 후생학 수업을 해요. 사실 대학원수업이 있고 하니 한 학기에 학부 과목을 2과목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명 강의실을 지정을 해요. 그래야 마이크를 안 쓰고도 강의가 가능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아이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마이크를 안 쓰는 이유는 울려서 듣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죠. 수업이라는 게 듣고 싶어도 듣다 보면 졸릴 수밖에 없는 건데 마이크가 웅웅 거리면 더 자기 쉬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 전달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40명 정도 수강 중인데 사람이 많을수록 학생도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적은 수강 인원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Q3. 수업을 하실 때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숲을 보라’예요.

제 수업이 생물학인데, 많은 학생들이 생물학 하면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생물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많이 하는 말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고 싶은 만큼 보인다**”란 말인데요.

어떤 똑같은 사실에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근데 모르면 아예 그게 뭔지 안 보이잖아요. 만약 카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카페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카페 라는걸 모르는 사람은 ‘아 그냥 상점이 있구나’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알게 되지, 알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모르죠. 뉴스를 보면서도 아는 게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인식이 되는 것 처럼요.

저는 학생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Q4. 20대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현실에 충실해라, 지금 자기자리에서 충실해라.”

지금 현재 학생들이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생이 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대학생이니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지금에 가장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에 충실해야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후회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거고. 공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바로 공부 할 때’예요.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김 애 리 교수님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과는 여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여학생들이 나중에 엄마, 며느리, 아내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것에 만족하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당당하게 '나는 전업주부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가지세요.

세상에서 자기 의식주를 해결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 본인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분자생물학과 '김 애 리'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마치 아들, 딸을 대하듯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부산대 여러분, 유익하고 재미난 방학 보내시길 바랄게요! See you again:)